

백제복식문화 연구 (제1보)

채금석 · 고정민[†]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A Study on the Baekje Culture of Costume (Part I)

Keum Seok Chae · Jung Min Koh[†]

Dept.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09년 1월 16일), 게재확정일(2009년 3월 25일)

Abstract

Historical compliance with economics in a political interchange accepts the elements of multiculturalism to develop a new field in the research with China. New research seeks to point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ekje dress style in relation to studies on East Asian fashion that observe the role and place of Baekje apparel. This study reveals the formation background of Baekje dress culture. Examined are the cognitive world of Baekje dress culture. The study reveals the form of the three Baekje Kings and royal dress.

Key words: Immortal ideology, A portrait of ambassador in the Yang Dynasty, Costume of wide sleeves, A genealogy of the Japanese royal family, A Queen of Suiko in Japan; 신선사상, 양직공도, 이대수, 신찬성씨록, 스이코여왕

I. 서 론

복식사는 그 시대의 인간이 살아 온 영위의 역사로서 단순한 복식만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를 담구하는 것이며, 인간이 만들어 낸 또 다른 문화와의 연관성, 사회·경제적 배경, 또 동시대의 인간생활 전체의 반영으로서 연구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와 한류의 바람을 타고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전파되는 시점에서 고대복식문화의 정체성 규명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최초의 한류기원은 1400년 전 백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의식주 전반에 걸쳐 백제의 열풍이 불었는데 백제를 가리켜 ‘百濟(くだら-구다라)’라고 불렀다고 하며 ‘시시하다’(くだらない)라는 단어에서 볼 때 ‘나ই’는

부정어이므로 시시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백제가 굉장했던 나라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일본 고대국가의 수도 아스카에는 백제에서 건너와 최첨단 방직기술의 백제식의 옷을 만들었던 ‘꾸레쓰히코’를 기념하여 ‘옷의 신’을 모셔 둔 신사(神社)가 있다. 아직도 오사카에는 백제역, 백제천, 백제지, 백제신사 등 이름이 남아 있으며 이는 백제가 663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자 수천의 백제유민들이 대거 망명 오늘날의 오사카를 중심으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어 그 당시 한·일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백제는 BC18년 건국하여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678년간 번영했던 고대국가이자 삼국 가운데 중국 및 일본과의 국제적 교역에 있어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당시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한데 비해 백제는 南朝-西晉, 東晉, 劉宋, 일본과 교류하였다. 우리 고대 역사는 활발한 무역이나 정치적 교류에 의해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여 발전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

[†]Corresponding author

E-mail: pmulh@yahoo.co.kr

본 논문은 2009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되었음.

가 중국의 영향으로 막연하게 예측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전히 많은 의문 속에 남아 있는 백제의 복식을 새로운 시각과 자료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백제복식의 역할 및 그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고대역사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학설로 주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고고학, 미술사학 등과 연계성을 갖고 당시 문화적 교류를 통한 시각자료들의 역사성과 함께 비교·검토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연구하게 되었다. 특히 정사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영토개념에 국한하여서는 고대의 복식이나 고고학자료가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백제복식문화의 형성 배경을 밝힌다. 둘째 백제복식문화의 정신세계를 규명한다. 셋째 백제왕과 왕비복식의 형태와 구조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는데 있어 기존의 고대복, 동아시아 및 비잔틴, 크레타자료, 중국과의 대외 관계·무역 및 사회상의 비교 분석을 통해 백제복식의 실상과 그 원류를 밝히고자 한다.

II. 백제의 역사적 배경

1. 시대적 배경

백제의 역사는 한성시대(BC18-AD475), 웅진시대(AD475-538), 사비시대(AD538-660)로 구분된다. 마한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초기 백제는 475년까지 한성을 중심으로 관제와 관리의 복색 등 체제정비를 하였다. 가장 융성했던 웅진시대에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자와 왕족을 봉하여 지방통제를 강화하였다. 이후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여 백제의 중흥을 도모하였으나 나당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2. 사회적 배경

1) 신분구조

백제는 고구려에서 남하한 세력과 기존의 마한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제의 지배계급은 북방 부여족 계통으로 왕족인 부여씨와 8대 성씨의 귀족이 있었으며, 피지배계급은 마한의 토착인들로서 생산

에 종사하면서 군사·조세·부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백제의 관리들은 크게 3등급으로 나누어졌다.

2) 관료제도

백제에는 왕의 권력 기반을 제공한 소위 대성팔족이라는 성씨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한성, 웅진, 사비 시기를 거친 귀족들이었다. 관료들의 官等은 16官等の 품계로 나누어진다. 백제관제는 한성시대에 5部體制 아래 佐平과 率, 德의 관제가 있었고, 사비시대 16官等制는 관제(冠制), 복색제(服色制), 대색제(帶色制)로 관리의 상하서열체제이다(양경애, 1997).

3) 정신적 배경

백제복식문화를 유추하는데 있어 그 당시 백제인을 지배한 정신세계는 백제복식문화를 살펴보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백제인의 정신세계는 그 인적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隋書』 열전 등이 백제조에 의하면 백제의 지배계층은 고구려에서 남하한 세력들로 구성되었으므로 고구려의 정신세계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개국시대의 백제인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고 사료된다.

(1) 신선사상

백제의 정신세계를 조명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유교와의 연관성만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유교는 4C 들어 백제에 유입되었음을 볼 때 백제건국 당시의 지배계층이 고구려인임을 감안하여 고구려인들을 비롯한 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구려인들을 비롯한 고대인들은 현세의 삶보다 사후세계에 의미를 두어 장생불사의 신선모습을 이상적 인물로 여겼다. 고구려 벽화에는 다양한 신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고구려인들의 장생불사의 내세관이 표현된 한 예로써 사자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여 장생불로케 하고자 하는 염원이 벽화를 통해 표현된 것으로 본다(국립제주박물관, 2003).

고대신선사상의 발생은 산악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이 많은 우리 땅에서 신선설 내지 신선사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주장(차주환, 1990)되고 있으며, 『삼국유사』, 『고조선』, 『王儉朝鮮』 등에 나오는 단군설화도 산악신앙과 신선사상이 얽혀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신선설이란 인류의 장생불사에 대한 추구를 기초로 하며, 장생불사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신선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神話)라는 것은 신선이 되어 오래 살고자하는 신앙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선사상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는 백제의 대표적 유물로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금동대향로가 있다. 이의 상단 뚜껑부는 신선이 살았다는 봉래산이 중심이 되고 있어 바로 우리 고대의 산악숭배와 신선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발견된 <산경전(山景傳)>에 3신산과 도관 및 도사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음을 볼 때 이 역시 신선사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개국시대 백제인의 정신세계는 도교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 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신선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신선설은 본래 한민족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중국에 전파되면서 본래의 정신과는 괴리된 미신과 잡술에 가까운 형태로 전락해 버렸다. 따라서 신선설과 연결되는 도교의 기원을 한국 신선사상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김용만, 1998). 백제의 도교와의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부여의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에서 노장사상(老莊思想)이 보이고 있으며 『삼국사기』 근구수왕조(近仇首王條, AD375-384)를 참조하면 4세기경 도가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권오영, 2005).

이에 대한 반증으로 백제의 왕은 천신과 오행사상에 의한 5제신을 받들어 제사지내고 그들 시조인 구태(仇台)의 사당을 도성 안에 세워 모셨으며, 하늘뿐 아니라 천지산천 등 자연의 여러 신을 숭배해 온 토속 신앙이 그 맥을 이어갔으므로 개국시대부터 유교가 들어오기까지 백제는 이러한 신선사상이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

(2) 유교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의 개국 당시엔 고대인들의 정신세계가 지배적이었으나 고이왕(AD234-286) 시기부터는 제사나 묘제 등 의례 윤리의식에도 유교적인 의식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근초고왕(AD346-375) 시대부터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여, 한문(漢文)을 사용한 역사서를 편찬하였으며, 4세기 후반부터는 유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여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 아직기(阿直岐)와 왕인(王仁)을 들 수 있으며, 백제는 일본에 학술과 문화를 전파하여 일본 고대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3) 불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백제는 4세기(AD384)에 동진에서 온 인도승려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수용되었다. 왕실의 안녕을 빌고, 재래신앙에 대신하여 민중을 통제할 지배이념으로 불교를 수용했으며, 또한 미륵정토신앙과 결합하여 실천불교로서 민중 속에 뿌리내리는데 성공하였다.

4) 인류학적 배경

‘백제인의 키는 크며 의복은 깨끗하다’는 기록이 『梁書』 백제전에 있고, 백제의 선조는 고구려국 출신이며 백제의 의복은 고구려의 것과 대략 동일하다는 기록과 백제에는 신라, 고구려, 왜인 등이 섞여 있었으며, 중국인도 있었다는 기록이 『隋書』 열전 등이 백제조에 있다. 부여 능산리 백제고분출토 인골 세 구를 바탕으로 키를 산출해본 결과 53호분 남자는 166cm-174cm, 여자는 161cm-170cm, 36호분의 여자는 161cm-168cm사이로 추정되고 있어(최몽룡, 2000) 오늘날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II. 백제의 국제관계

1. 중국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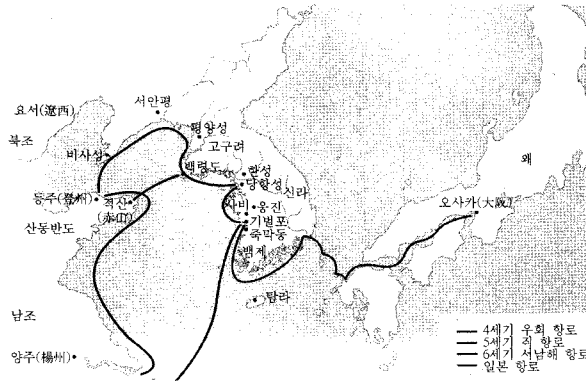
백제가 중국과 정식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것은 근초고왕 27년(327)이다. 또한 양(梁)나라의 원제(元帝)인 소역(蕭繹; 505-554)이 지방관리로 재직 중(526-539)에 양나라에 조공을 하러 온 외국사신의 모습을 그려 각 나라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은 <그림 6>을 통해 당시의 백제인의 모습과 그 복식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중국의 남북조 및 진과 교류한데 비해 백제는 남조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그림 1). 그 당시 남조의 수도였던 남경에는 지금도 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2. 일본과의 관계

백제의 외교관계 및 국제관계에 있어서 당시 일본과의 관계는 백제복식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을 밝히는 논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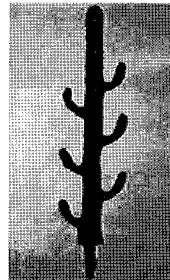
1) 한반도 이주민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가기 시작할 때는 기원전 3세기로 본다. 현재 일본천왕의 家系가 기원전 660년의 신무(神武)왕부터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역사시대는 한반도에서 삼국이 정립되는 시기와 비슷한 기원전 97년 숭신(崇神)왕부터라고 말한다. 숭신왕은 신무왕과 家系도 달리하는 새로운 왕이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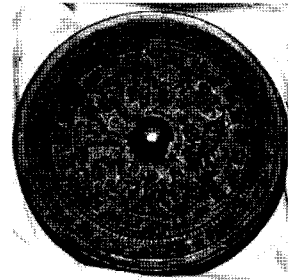
<그림 1> 고대중국·일본과의 교역로

내용이 『日本書紀』에 기록(是以, 天神地祇共和享 而風雨順時 百穀用成 家給人足 天下大平矣 故稱謂御肇國天皇也, 日本書紀 卷 第 5 崇神天皇) 되어 있다(舍人親王, AD720/2008) 한반도 이주민 가운데 백제계가 일본 왕실의 실력자로 들어서게 된 것은 3세기 후반부터 4세기까지(고훈시대) 약 120년 동안의 응신(應神)왕(AD 270-310)과 인덕(仁德)왕(AD313-399) 때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의 응신왕에게 보냈다는 칠지도(七支刀·일본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에 소장)<그림 2>의 명문(銘文-泰()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七支刀()? 百兵宜(復) 供侯王()() ()作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傳(示) 後世)이나 인덕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거울 등으로 응신왕이 백제계임이 확인되었는데(이도학, 1990) 이는 일본서기 신공황후기에서도 재확인 할 수 있다(五十二年秋九月丁卯朔丙子, 久等從千態長彥詣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 及種種重寶, 日本書記 卷 第 9 神功皇后)(舍人親王, AD720/2008).

2) 역시 507년 고훈시대 계체(繼體)왕(AD507-531)이 백제 무령왕과 형제간이었음을 밝히는 유물이 나왔다. 이는 인물화상경(人物畫像鏡-1914년 오사카근처 와카야마(和歌山)현의 한 신사(神社)에서 발견, 서기 50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일본국보2호, 국립동경박물관 소장)이라는 청동거울<그림 3>로 이 거울에 새겨진 ‘남제왕(男弟王)’과 ‘사마(斯麻)’라는 글귀 癸未年 八月日十大王年男弟王在意紫沙加宮時 斯麻念長壽 遺開中費直 濊人今州利 二人等 取白上同二百 作此鏡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는데, 그 글귀는 무령왕인 사마가 고훈시대 왕실에서 동생과 지내다 아버지인 백제 동성왕의 뒤를 이으려 고국으로 돌아온



<그림 2> 칠지도



<그림 3> 인물화상경

후 동생에 대한 염려를 적어 보낸 내용이라 한다. 사마는 왕이 되기 전 무령왕의 이름이다.(武寧王立 諱斯麻王. 是琨支王子之子.. 日本書紀 卷 第16, 第25世 武烈天皇)(舍人親王, AD720/2008). 한편 1971년 무령왕릉출토유물인 묘지석(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 年六十二歲 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 到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 安登冠大墓 立志如左)에도 사마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 고훈시대의 계체왕(남제왕과 동일인)과 백제의 무령왕이 형제간임을 밝히는 또 다른 단서가 되었다(蘇鐵徹, 1994).

이를 통해 6세기 들어 즉위한 일본 고훈시대 왕들은 백제왕실과 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을 통해 가장 막강한 세력을 지녔던 고훈시대 곤지왕자는 백제 개로왕의 동생으로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 갔으나(蓋鹵王遺第昆支君向大倭侍天王, 日本書紀, 雄略天皇, 5年4月) 문주왕, 삼근왕이 일찍 죽자 동성왕(天皇, 以昆支王五子中, 第二末多王...衛送於國. 是爲東城王, 日本書紀, 雄略天皇, 23年4月) 무령왕을 백제에 보내 왕으로 즉위시키고 이후 의자왕까지 그 세력을 이어갔다(고운기, 2002).

3) 한편 최재석(1989)은 백제와 일본왕실의 관계를 궁극학자료로 치밀하게 밝혔는데 815년 헤이안시대 일본왕실에서 만들어진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은 일본의 고훈시대 민달(敏達)왕(AD572-585)이 백제의 왕족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인 흠명(欽明)왕(AD539-572)도 백제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일본에서는 이 흠명왕을 백제의 성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구려에 패한 백제 성왕이 일본으로 건너가 고훈시대 흠명왕으로 즉위하였다는 것인데 이 흠명왕은 실제 처음 불교를 전해 준 왕으로 일본역사서에 기록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찬성씨록』 기록에 의하면 百濟系인이 143개姓으로 분석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143개姓 중 51개姓은 왕족인 것으로 밝혀졌다(洪思俊,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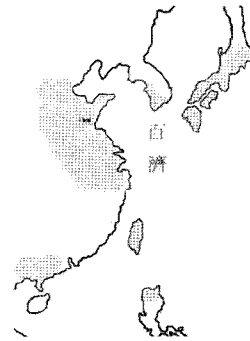
4) 일본의 사학자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는 일본 고대인은 한국의 고구려·백제·신라 및 중국에서 끊임없이 집단이주해 온 사람들이 함께 동북지방의 변경지대, 이즈(伊豆)의 7개 섬에 흩어져 토착민으로 살았으며 이후 유력한 씨족이 계속하여 건너오므로써, 차츰 중앙집권을 위한 다투미 생기기 되었고 이 가운데 백제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호족을 대표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운기, 2002). 또한 이를 반증하는 기록이 양직공도<그림 6>에 나타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V. 양직공도를 통한 백제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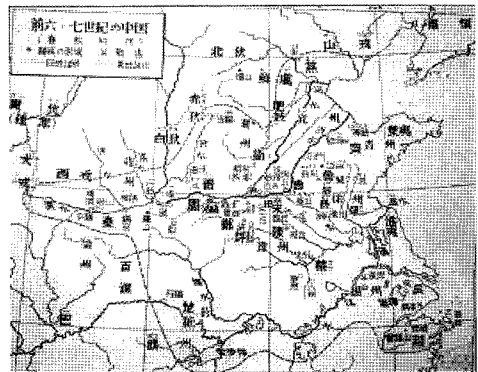
양직공도<그림 6>에 나타난 문구를 통해 당시 백제의 위치를 새롭게 알 수 있다.

1) 百濟舊萊夷馬韓之屬: “백제는 옛 래이로 마한의 무리다”라고 풀이되는데 래이는 당시 산둥성 청주에 살고 있는 이족(夷族)을 가르키는 말로 書傳 卷5 夏書 “揚島夷, 靑州之萊夷, 徐州之淮夷, 梁州之和夷”의 기록에 보면 “양주에는 도이가 있고, 청주에는 래이가 있고, 서주에는 회이가 있으며, 량주에는 화이가 있다”고 되어 있다(그림 5). 따라서 이 청주는 대륙의 산둥성을 말하며 백제인을 가리켜 동청주자사라고 칭하는 직위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백제가 현재의 산둥성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위치와 동일하다. 이로써 중국고대복식의 정체성 및 우리 고대복식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亦有遼西晉平縣: “백제 역시 진평현에 있었다”라



<그림 4> 백제22담로



<그림 5> 6-7세기의 중국

는 문구로 풀이되는데 양나라 사서 『양서 권54 열전 48 백제조』, 晉時駒驪略有遼東, 百濟亦据有遼西管平郡矣 自置百濟郡 문구에도 백제가 자치백제군을 요서와 진평군에 두었다는 기록이 명기되어 있으며, 송서, 남제서, 구당서의 기록에서도 위의 내용이 있고, 통전 권185 백제전에 663년 요서지역의 백제군은 돌궐과 말갈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당시 백제가 대륙에 흩어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 有二十二擔魯, 分子弟宗族爲之: “그 나라에는 22담로가 있는데 모두 왕의 자제와 종족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라는 문구를 살펴보면 백제의 주요 담로는 왜국, 흑치국(광서장족자치국), 탐라국 등이 있었다(그림 4).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흑치상지는 왕족인 부여씨를 말하며 당시 흑치국의 제후였으므로 흑치관성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1929년 중국 낙양 북망산 고분에서 출토된 묘지석에는 ‘흑치상지는 백제왕가의 일원으로 22담로의 하나인 흑치국의 제후로 분봉된 것이며, 대를 이어 흑치국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흑

치 성씨를 삼게 되었다'고 기록을 통해 이를 반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광서장족자치구는 옛 흑치국을 말하는데 현재도 흙주 서북 옹령현에는 백제허(百濟虛)라 적고 우리 발음인 대백제(DaiBeakJae)로 읽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성훈, 2008).

이상의 자료를 통해 당시 백제의 지리적 위치가 현재의 중국 산둥반도와 광서장족자치구, 일본 등지였으므로 일본의 하니와, 천수국수장, 고송충벽화, 양직공도 등에 나타난 복식은 백제복식문화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고 또한 중국의 제나라 문화 역시 우리 백제가 근원이 될 수 있는 단서이다. 이로써 중국고대복식에 우리의 백제문화가 뿌리가 됨을 알 수 있다.

V. 백제의 복식

백제복식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삼국사기』, 『百濟本紀』, 『梁書』, 『周書』, 『日本書記』 등의 고書, 양직공도 및 고분벽화 등의 그림자료, 하니와 같은 유물을 근거로 하였다. 이들 자료가 백제복식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다.

『삼국사기』 卷24 『百濟本紀』 古爾王 27年條 “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青”에 의하면 백제는 국제가 확장된 고이왕 27년(서기 260년) 관제와 신분제를 정비하고, 관직과 품계에 따라 왕은 물론 관리들도 정해진 색의 옷을 입도록 했다. 이 같은 복식의 제정에서 백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당시 중국의 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梁書』, 『僞書』, 『周書』, 『隨書』, 『南史』, 『北史』, 『新唐書』 기록에 의하면 “백제인들은 키가 크고 의복이 청결하였으며, 그 나라가 왜(倭)와 가까우므로 문신을 하는 자가 꽤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모자를 ‘관(冠)’이라 하고 저고리를 ‘복삼(複衫)’이라 하고 바지를 ‘곤(袴)’이라 한다”고 하였으며(박선희, 2002), 『梁書』 卷 54 列傳 48, 諸夷 百濟에 의하면 언어와 복장이 대략 고구려와 같다고 기록 되어 있다.

백제복식에 관한 기록으로 백제복식도 그 형태가 상대복식의 기본형인 유(저고리: 襦), 고(바지: 袴), 상(치마: 裳), 포(두루마기: 袍)를 착용하였으며, 이는 고구려의 것을 통해 짐작 할 수 있고, ‘금동대향로’의 발굴을 통해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다.

‘백제의 복식이 고구려와 같다’고 한 尙致卷81 『列傳』 風俗·刑政·衣服, 略與高句麗百濟同로 보아 백

제 및 고구려, 신라가 같은 계통의 복식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고조선시대부터 고대 한국복식의 특징을 당초까지 그대로 고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는 <제2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당시 백제는 활발한 해상로를 통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인도, 서역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으므로, 여러 문화와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복식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周書』 卷49 『列傳』 百濟傳 ‘基衣服, 男子同於高句麗... 婦人依袍, 而袖微大’에 의하면 동부여는 큰 소매의 포를 입었고, 백제의 왕은 자대수포를 입었으며, 일반 남자의 의복은 대략 고구려와 같고, 부인의 의복은 포와 같은데, 소매가 약간 크다고 했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백제의 건국 시조 및 왕실의 혈통이 부여계이기 때문이며, 신하는 붉은 옷에 은위로 관을 장식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참고된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료와 왕복의 구조를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하였다.

『後漢書』 卷15 『韓傳』, 卷85 『東夷列傳』 ‘布袍, 革履’에 의하면 부여와 같이 포를 입었던 나라로는 한반도 남부의 한(韓)이었는데, 가장 북방에 있던 동부여와 한반도 남부에 있던 한에서 포를 입었다는 사실은 만주와 한반도에 있던 우리 민족 여러 나라에서 모두 포를 입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박선희, 2002). 상기한 바대로 왕복에 대한 문헌기록을 <표 1>에 정리하였다.

1. 백제왕 복식

1) 상복(常服)

상복은 조선시대 왕이 평상 시 집무할 때에 착용하는 옷이다(김영숙, 1999). 고서에 일반적으로 왕의 복식에 대한 표현이라면 평상 시에 입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복이라 명명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백제시대 왕이 상복을 입고 집무하였다는 자세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다음의 설명할 세키네 교수 주장의 왕비옷과 구분하기 위해 문헌기록상의 왕복을 상복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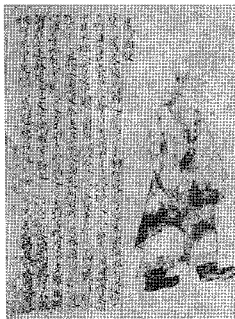
<표 1>를 참조하면 백제왕은 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烏韋履 坐南堂聽事라는 『삼국사기』, 『百濟本紀』 고이왕(古爾王) 28년(AD261) 조의 문헌기록을 통해 선행된 연구(김동욱, 2003; 박선희, 2002)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백제왕의 자대수포 속에는 ‘복삼’이라는 국속의 저고리와 바

<표 1> 백제왕 복식에 관한 문헌기록

문헌	소속	기록	내용
三國史記	한국	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烏韋履 坐南堂聽事	*자대수포(紫大袖袍): 자색(紫色)의 대수포(大袖袍) *청금고(靑錦袴): 푸른색에 화려하게 금직이 장식된 통 넓은 바지 *금화식오라관(金花飾烏羅冠): 흑색의 비단관에 금화식(金花飾)을 꿰음 *소피대(素皮帶): 백색 가죽띠 *오위리(烏韋履): 흑색의 가죽신
舊唐書, 新唐書, 後漢書, 周書	중국	*羣臣絳衣, 飾冠以銀 *布袍, 革履 *基衣服, 男子同於高句麗... 婦人依袍, 而袖微大	*군신강의(臣絳衣): 신하가 붉은 옷을 입음 *식관이은위(飾冠以銀): 은화로 장식된 관 *포포(布袍): 포를 입음 *혁리(革履): 가죽신 *남자락동이고구려(男子同於高句麗): 남자는 고구려와 비슷하게 입음 *부인의포 이수미대(婦人依袍, 而袖微大): 부인은 포를 입는데 소매가 약간 큼
日本書紀	일본	백제에서 금부 정안나가 도입하여 일본 내 도원에서 한금을 짠으며 일본 금무연의 조상이 되었다는 기록	한금: 천화만추의 화조문금 즉 사증경의 삼매능의 비단(關根正直, 1925)

지를 기본으로 착용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대수포의 소매넓이는 넓다고만 되어 있어 그 넓이를 추정하기가 애매하나 다음에 설명할 세키네 교수의 왕비옷을 참조하면 전통보다 수구넓이가 두배 정도 넓은 대수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포의 길이는 그 아래로 바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왕이 입은 포의 길이가 바닥에 끌리는 정도의 길이는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서미영, 2003).

청금고는 백제사신의 바지<그림 6>처럼 개구고(開口袴)로 통이 넓고 밑단에 선(襷)을 두른 것으로,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인물도들에 나타난 관고(寬袴) 착용방법인 발목부분을 조이는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관은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화양입식(華樣立飾)을 좌우대칭으로 하고, 양쪽에 끈을 단 형태로 생각된다. 무령왕릉출토



<그림 6> 양직공도-백제사신도

금제관식은 초화문(草花文) 투조식(透彫式)으로 금영락(金瓔珞)이 달려있다. 대(帶)는 장식이 달려있는 백색 허리띠로서, 백제 고이왕대의 공복제도 품계에 따라 ‘자(紫), 조(阜), 적(赤), 청(靑), 황(黃), 백(白)색의 대(帶)’를 착용했다는 기록과 함께 무령왕릉출토품을 고려하여, 허리에 띠를 두른 후 그 띠의 여유분을 아래로 늘어뜨려 혁대(革帶)나 과대(帶)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5각형의 은제장식 과대 출토품을 고려할 때 직물로 된 허리띠에 5각형의 은제장식을 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오위리라는 검정색 가죽신은 무령왕릉출토금동신발과 같은 형태의 신으로 여겨지며, 안에는 버선을 신었을 것이다(서미영,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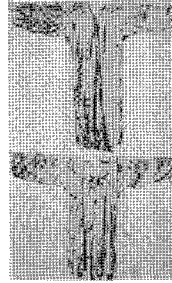
이로써 전술한 문헌기록을 토대로 백제왕은 우리 국속의 바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여 포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소재로는 금, 라와 같은 비단종류가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 색의 구조는 적(자)(紫), 백(白), 청(靑), 흑(黑), 황(黃)으로 정리되며 이는 한국의 만다라에 나타나는 색과도 동일하다. 한국의 만다라라는 화엄만다라로 이는 화엄경에 기록된 설법내용을 묘사한 불화이며 초기 밀교에 바탕을 둔 한국 특유의 독창적인 불화이다. 화엄만다라에 나타난 색은 적(자), 황, 청, 백, 흑이다. 중국 및 티베트의 만다라인 양부만다라(태장계&금강계)에 나타난 색은 백, 청, 적, 황, 녹색이다. 이와 같이 왕복색과 화엄만다라의 색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 고대복식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복식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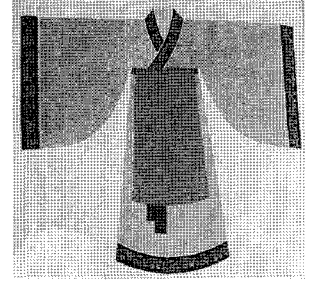
<그림 7> 안악3호분 묘주



<그림 8> 안악3호분 재현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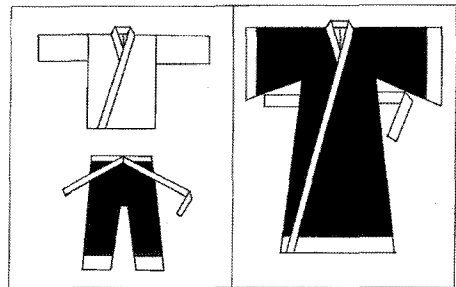


<그림 9> 노인우라 출토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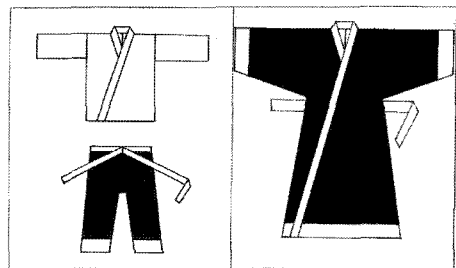


<그림 10> 위진남북조 남자복식

한편 백제의 지배계층이 고구려 남하세력됨을 감안하여 백제왕·왕비복을 유추함에 있어 고구려 안악3호분 묘주옷<그림 7>을 참고해 보고자 한다. 안악3호분 묘주를 중국측은 ‘동수’로, 남·북한학자들은 고구려 ‘미천왕’으로 주장하고 있다. 묘주<그림 7>는 앞이 막혀있는 V자형 깃의 포를 입고 있는데 진동에 많은 주름과 깊이가 있고 수구는 좁게 되어 있어 이러한 실루엣 재현을 위해 다수의 패턴을 구성·착장 실험한 결과 진동깊이가 거의 허리선에 이르고 수구 쪽으로 30도 각도로 좁아지는 사선배래형으로 제작함으로써 벽화<그림 7>의 실루엣에 가깝게 재현되었다(그림 8)(채금석, 2005). 이 포의 전면이 트여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다. 문헌기록에서도 언급된 바 없고 소매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지 않으나 노인우라 출토 복식<그림 9>에서 이와 흡사한 형태<그림 8>를 찾을 수 있고 흉노가 중국 북부, 연해주를 거쳐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유입된 경로(정수일, 2008)를 감안할 때 당시 이러한 포가 북방계 상류층에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림 7>의 포는 동시대 중국 위진남북조의 포형태<그림 10>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 안악3호분 묘주를 우리 고구려왕으로 보는 남·북한학자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묘주부인을 왕비옷 추정에도 참고하였다. 다만 <그림 7>을 보면 주름의 양으로 보아 품이 넉넉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구와 목둘레에 가선이 있고 속저고리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구려왕이 썼다는 백라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벽화에 나타난 묘주옷의 색의 구조 역시 자, 황, 백, 흑으로 문헌기록과 거의 일치하며 화염만다라의 색과도 일치한다. 한편 문헌과 고구려 벽화의 묘주옷 형태를 비교해 볼 때 상기 문헌기록과 대조해보면 자대수포와 백라관이 일치하는데 다만 묘주 옷은 직령교임이 아닌 V자형 령에 앞이 막혀



<그림 11> 백제왕 상복 도식화 I



<그림 12> 백제왕 상복 도식화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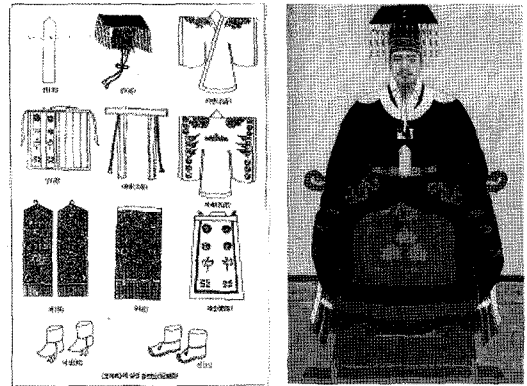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흔히 우리 고대복식의 직령교임의 포와는 차이가 있다. 전개형인지 전폐형인지를 두고 볼 때 두 가지의 포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되며 직령교임, 직령전폐형 모두 직령임은 일치한다. 이를 도식화 <그림 11>~<그림 12>에 정리하였다. 이 도식화들은 문헌기록을 토대로 하였으나 특히 <그림 11>는 문헌자료(梁書, 僞書, 周書, 隨書, 南史, 北史, 新唐書)에 표현된 대수를 적용·참조하였으나 그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세키네 교수의 직령교임과 진동에서 수구쪽으로 넓어지는 형태를 참조하였으며 <그림 12>은 <그림 7>을 참조하여 진동보다 수구가 좁은 사선배래형으로 제시하였다.

2) 대례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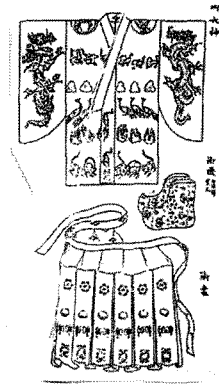
대례복이란 왕과 왕비가 중대한 의식 때 입는 예복을 말한다(김영숙, 1999). 조선시대에는 왕의 대례복을 면복이라 하였으나 백제시대에 이러한 명칭을 언급한 기록은 없다. 다만 다음의 일본학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이의 구조가 조선시대 면복과 유사하고, 당시 면복이 대례복으로 사용됨을 참고하여 대례복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1920년대 일본의 복식학자 세키네 마사나오(關根正直) 교수는 정창원에 소장 중인 한국고대의 여대수, 어상, 금말을 손수 그려 자신의 저서(關根正直, 1925)에 공개하였다. 이를 참조하면 이 옷의 문양은 조선시대 왕의 면복과 아주 흡사하다. 세키네 교수는 이 옷을 여왕옷이라 설명하고 있고(絹は仲哀天皇の九年に新羅より絹貢し...應神天皇の朝に百濟より縫工女貢し...歸化して..製しけむ)(關根正直, 1925). 또 다른 한국학자(홍윤기, 2008)는 이를 백제옷이라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궁내청에는 거의 흡사한 형태의 천황예복이 소장되어 있다(그림 16)(코이케 외, 2005/2005). 진술한 바와 같이 고훈시대 왕들이 백제인이라는 주장을 참고하면 세키네 교수의 자료는 백제옷과 무관치 않으며 또한 일본의 고대에는 여러 명의 여왕(卑彌呼여왕, 神功皇后-日本書紀 卷第9, 推古天皇-日本書紀 卷第22, 齊明天皇-日本書紀 卷齊26 등)이 존재하였으므로 세키네 교수는 이 옷을 여왕복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옷의 형태가 여왕복에 있었다면 분명 왕복도 이와 유사한 옷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續日本記』에는 AD732년(天平4年) 신년조하(新年朝賀)에 천황이 면복을 착용했다는 기록(코이케 외, 2005/2005)이 있다. 이로써 세키네 교수가 그린 본 <그림 14>의 백제복식원형과 일치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으나 적어도 백제시대에 면복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면복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최초 기록은 고려 정종 9년(1043년) 거란주(契丹主)로부터 왔는데(김영숙, 1999) 이후 조선시대 면복은 면류관에 곤복을 갖춰 입은 12장복이나 9장복이었다(그림 13). 그 구성을 보면 곤복은 의, 중단, 상, 폐슬, 현대, 대대, 수, 옥패, 말, 석, 그리고 구로 되어 있다. 의는 직령, 교입, 대수이며 양쪽 어깨와 수구·뒀길 중심에 문양이 있다. 그 위에 문양이 있는 앞3폭 뒤4폭의 상을 입고 상과 동일한 문양의 폐슬을 덧입는다. 두 줄 끈장식이 있는 대대를 두르고 현대를 두르며 패옥과 수를 달아준다. 비단으로 된 버선과 목이 긴 석을 신는다. 또한 중국 한나라(BC202-AD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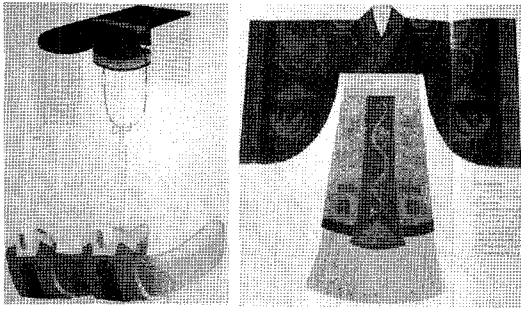


<그림 13> 조선시대 9장복과 12장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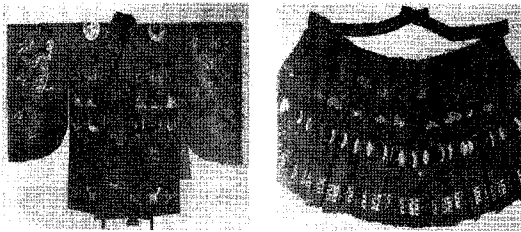


<그림 14> 세키네 교수의 면복

의 면복 구성을 보면 현의훈상(玄衣裳)에 장문이 있으며 이 외에 폐슬, 패수 등이 일습을 이룬다. 이러한 복식제도는 주대부터 한나라 이후 위진시대(AD3-6)뿐 아니라 명에 이르기까지 수 천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 예로 <그림 15>를 보면 흑색 衣는 직령·대수·깃·수구선에 선장식이 들어갔으며 화충, 화, 종이의 3장문이 있고, 裳은 조, 분미, 보, 불의 4장문이 있다(이정옥 외, 2000). 상 위에 용문이 그려진 긴 폐슬을 둘러 덧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폐슬은 원래 배와 생식부위를 차단하는 용도였으나 점차 예복으로 바뀌고, 이후 귀한 자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화매, 1992/1992). 면복은 면류관과 함께 앞부분이 둘로 갈라지고 휘어진 석(鴛)을 신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세키네 교수의 자료는 조선시대와 중국 한나라 면복의 구성<그림 15>에서 형태와 특히 문양이 아주 유사하지만 문양배치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림 15> 중국 한나라 12장복, 면관, 적석



<그림 16> 일본천황예복 곤면 12장(宮内廳 소장)

<그림 14>의 구조를 보면 직령, 교임, 대수의 어대수를 입고 그 위에 큰 맞주름의 여상을 입었을 것이며 금말을 신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어대수 소매와 길 전면에 문양이 있으며 상에도 주름마다 문양이 있고 금

말 역시 문양이 그려져 있다. 분명 어대수 속에는 바지, 저고리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4>을 백제의 대례복으로 추정한다면 구성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상복보다는 장식이 많고 격식이 갖추어진 형태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면복, 중국 한나라의 면복, 세키네 교수의 면복을 비교해 <표 2>~<표 3>에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면복이 전해지기 이전에 백제시대에 이미 면복과 같은 형태의 대례복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전술한 고대백제의 위치<그림 4>를 참고해 볼 때 중국의 면복은 이미 우리 고대역사에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해 본다.

2. 왕비복

고서에는 왕비복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다만 무령왕릉의 출토유물로 말미암아 관전입식(冠前立飾)이 왕의 것과 비슷하다는 면에서 고갈형의 관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왕처럼 왕비 또한 대수의 포를 걸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세키네 교수의 면복<그림 14>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 상복(常服)

왕비의 상복은 기록된 내용이 없어 주변국의 복식 문화를 통해 그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일

<표 2> 조선시대 면복, 한나라 면복, 세키네 교수의 면복 구성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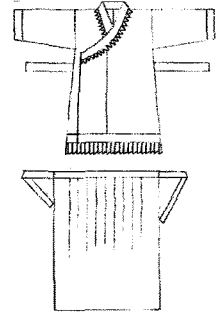
	아이템	조선시대 면복 (AD1392-1910)	중국 한나라 면복 (BC202-AD220)	세키네 교수의 면복 (백제로 유추: BC18-660)
구 성	면류관	사각형 면관, 술	앞은 둥글고 뒤는 각진 면관, 술	없음
	의	직령, 교임, 대수, 두리소매 깃·수구선장식 없음 섶	직령, 교임, 대수, 금한곡선배래 깃·수구선장식 섶 유무 알 수 없음	어대수: 御大袖직령, 교임, 대수, 느린곡선배래 깃·수구선장식 없음 섶
	상	앞3폭, 뒤4폭 착장형태: 두르는 형	내상, 짧은 외상 착장형태: 두르는 형	어상: 御裳 큰 맞주름, 착장형태: 두르는 형
	중 단	깃, 도련, 수구 청색선장식, 깃에는 불문 13개 금박	없음	없음
	말	겉: 비단, 안: 緋綳	알 수 없음	금말: 錦襪
	폐 슬	직사각형, 鉤2개	아래로 넓어지는 긴 장식	없음
	혁 대	금구첩	알 수 없음	없음
	대 대	두줄 끈장식	알 수 없음	없음
	수	쌍금환장식	알 수 없음	없음
	패	옥장식, 양옆착용	알 수 없음	없음
	석	겉: 비단, 안: 백증	앞부분이 두 개로 갈라지고 휼	없음
	규	9寸의 청옥	알 수 없음	없음

<표 3> 조선시대 면복, 한나라 면복, 세키네 교수의 면복 형태·문양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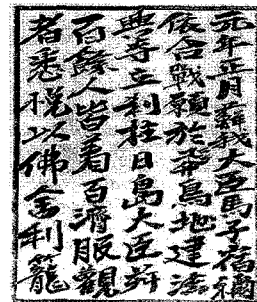
아이템		조선시대 면복	중국 한나라 면복	세키네 교수의 면복
형태	의	① 전면: -어깨좌: 불 -어깨우: 불 -길 전체: 문양없음	① 전면: -어깨좌: 삼죽오 -어깨우: 두꺼비 -길 전체: 문양없음	① 전면: -어깨좌: 삼죽오 -어깨우: 두꺼비 -길 전체: 거북이, 바위, 꿩, 불문양 추정
		② 후면: -중심: 산	② 후면: -알 수 없음	② 후면: -알 수 없음
	소매	① 소매 전체: 문양없음 ② 수구: 용, 화충문양	① 소매 전체: 용, 산, 성신조문 추정 ② 수구: 문양있는 선장식	① 소매 전체: 용문양 ② 수구: 없음
		상	전면: 화, 종이, 조, 분미, 보, 불 각 각 두개씩	전면(외상): 종이, 조, 화, 분미, 보, 불문양 추정, 아랫단 선장식
	패슬	전면: 용, 불문양	전면: 용, 산문양 추정	없음
	말	문양없음	알 수 없음	불분명한 문양

본 고훈시대 스이코여왕의 초상과 고구려 안악3호분 묘주부인의 옷을 통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1) 일본 고대아스카(飛鳥)의 33대 스이코여왕(AD 592-628)은 백제인으로 백제의 의복을 입었다고 추정되는 인물이다(그림 17). 『신찬성씨록』(AD815 일본왕실에서 만들어진 족보)에 제30대 “민달왕(AD572-585)이 백제왕족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민달왕은 스이코여왕의 부군이자 친오빠로, 민달왕이 백제왕족이라면 스이코여왕도 어김없는 백제여성이라고 주장되고 있다(홍윤기, 2006). 기록에 따르면 스이코여왕 원년(593년) 1월, 아스카에서 사찰건축 범요 시 만조백관이 모두 백제옷을 입었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기뻐했다(부상략기 13세기)<그림 18>고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스이코여왕의 옷을 살펴보면 속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가선이 둘러진 청색의 포 형태의 장유를 입고 있는데 그 아래로 짧은 자색주름장식이 보이고 있다. 백색바탕에 기하학적 문양이 규칙적 사선으로 그려진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서 당시 왕비의 상복을 유추해 보면 속저고리, 저고리 그리고 치마와 장유인 포를 입은 형태로 볼 수 있다. 백제여자들이 입었던 긴 저고리인 장유(長)와 표의인 포(袍)의 관계와 구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스이코여왕의 초상화 속에서 장유(長)의 모습으로 미루어 왕비도 이와 유사한 포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이 백제시대 의사포가 아닌가 추측되어 진다. 스이코여왕의 옷에서 특히 곡령의 내의가 보이는 점이 특이한데 곡령의 내의는 고구려 벽화에서도 보여진다. 색의 구성은 청색, 자색, 백색, 황색, 흑색으로 나타나 이 역시 화엄만다라의 오색과 일치한다. 스이코여왕의 초상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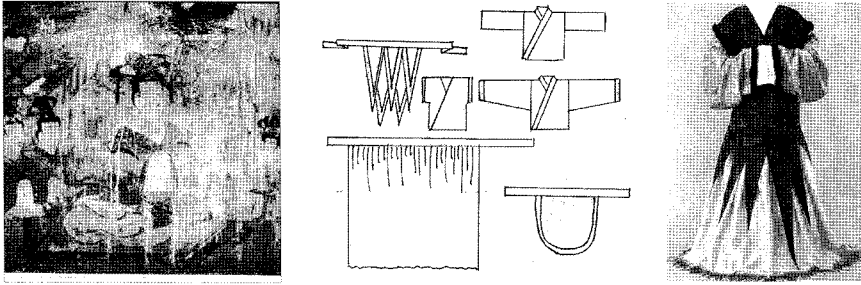
<그림 17> 스이코여왕 초상화와 도식화



<그림 18> 부상략기

식화로 표현하면 <그림 17>과 같다. 곡령에 대한 논의는 <제2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백제의 지배계층이 고구려에서 남하한 세력들임을 감안하면 고구려 벽화는 백제옷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고구려 안악3호분(AD357) 묘주가 고구려 미천왕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묘주부인의 복식을 왕비옷으로 추정하여 살펴보면 <그림



<그림 19> 고구려 안악3호분 묘주부인과 도식화 및 재현작품

19> 문양이 없는 소재의 내의를 2겹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의를 2겹 입는 것은 후대 고려부인들의 삼작저고리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내의위에는 선이 둘러진 대수의 황색 우입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겉옷으로 자주색 바탕의 화려한 문양과 흰점무늬가 있는 반비형태의 짧은 저고리인 반수의의를 입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저고리는 우리나라 고대 다른 벽화나 유물에서 찾아 볼 수 없어 특이할 만하다. 그리하여 중국의 반비에 대한 문헌기록-송서 오행지/ 신당서 현종왕후전을 찾아본 결과 그 기원은 기록마다 시기가 다르지만 여러 문헌에서 진대부터 착용(이정옥 외, 2000)했으며 수·당대 유행했다(중국오천년문물집간, 1995)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시대에 그 기록이 보여져 이 때 반비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안악3호분(AD357) 벽화가 증명해 주듯 고대부터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소매 짧은 저고리가 입혀져 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반비는 중국정통복식이 아니라 서역과 호풍 등의 영향이라는 기록(중국오천년문물집간, 1995)을 참고할 때 당시 국가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던 고대시대에 중앙아시아 주변지역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묘주부인의 반수의의 짧은 소매 끝에는 선이 둘러져 있는데 그 표현이 입체적인 것으로 미루어 천이 아니라 모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우라에서 출토된 상의에 모피를 단 흔적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구려시대에도 모피장식의 경우가 있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앞부분에는 삼각형의 거(裾)를 두른 후 다시 U자형 덧상을 두른 것으로 추정된다. 치마는 굵은 주름의 표현으로 인해 폭이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화려한 문양이 보인다. 또한 치마끝의 빚금표현은 봉미군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 고려시대 치마의 거단에 주름장식을 가한 봉미군이 전대를 통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채금석, 2005)

이러한 장식이 고구려복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색의 구성은 자색, 황색, 백색, 흑색으로 화엄만다라의 오방색과 일치하고 있다.

2) 대례복

백제왕실에도 왕비의 예복이 있었을 것이므로 세키네 교수의 그림<그림 14>를 형태상 대례복으로 간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백제계 여왕들은 비단 치마인 어상(御裳)과 양 어깨와 소매에 걸쳐 큰 용을 수놓은 어대수(御大袖)를 입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코끝이 오뚝한 금말(錦襪-흰 비단에 보라색 무늬로 연꽃 수를 놓음)을 신었다(홍윤기, 2006). 이 형태는 왕의 복식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 또한 백제의 치마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복장이 고구려와 동일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왕비를 비롯한 의례적인 경우에는 바지 위에 치마를 착용했으리라 본다. 왕비는 아래에 속바지를 입으며, 치마는 내상(內裳) 혹은 표상(表裳)을 입었을 것이다.

그 외의 장식으로는 다양한 장신구를 했을 것이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에 비해 한층 다양한 장신구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의 금동관과 송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금은 제품인 버들잎 모양의 장식은 관모에 꽂았던 장식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것이 관식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무령왕릉의 발굴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왕관, 왕비관에 꽂았던 관식이 발견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킴으로서 백제의 장신구의 발달이 한층 고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환식 귀고리와 비녀가 출토되었고 무령왕릉에서는 뒤꽂이가 출토되었다. 옥 종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옥이 출토되었으며, 목걸이(頸飾), 귀걸이(耳飾), 팔찌(釧) 등이 있고, 화장품으로는 얼굴에 시분(施粉), 눈썹에 대(黛), 입술에 연지(脂), 이에 염색후치(黑齒) 등이 있었다. 또한 머리에 빗이나 화전(花鈿) 등의 장식도 있다. 왕과

<표 4> 백제왕·왕비복식형태·구조

용도	형태	소재	색상	비고	
왕복	상복	*대수포 *마지 *혁대 *금화식관 *가족신	錦, 紗, 羅 등 비단류, 革	자색, 백색, 청색, 흑색, 황색	① 문헌출처: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 후한서, 주서, 일본서기 ② 그림출처: 양직공도, 안악3호분 묘주
	대례복	*직령대수포 *큰주름상 *비단버선 *가족신	錦, 紗, 羅 등 비단류, 革	색상은 알 수 없으나 상복보다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	① 문헌출처: 중국역대복식, 한국복식사전, 중국복식사,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② 그림출처: 세키네 교수의 왕비옷(정창원소장), 조선시대 면복, 중국 한나라 면복
왕비복	상복	*내유 *유 *상 *장유(포) *반수의	錦, 紗, 羅 등 비단류, 革, 모피	자색, 백색, 청색, 흑색, 황색	① 문헌출처: 부상략기, 일본서기, 신찬성씨록 ② 그림출처: 스이코여왕 초상화, 고구려 안악3호분 묘주부인
	대례복	*직령대수포 *큰주름상 *비단버선 *가족신	錦, 紗, 羅 등 비단류, 革	색상은 알 수 없으나 상복보다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	① 문헌출처: 일본서기, 신찬성씨록,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② 그림출처: 세키네 교수의 왕비옷(정창원소장)

왕비복에 관한 내용을 <표 4>에 요약 정리하였다.

VI. 결 론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백제의 외교·국제관계가 백제복식의 형태 유추의 중요한 자료가 됨을 밝히는 논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의 응신왕에게 보냈다는 칠지도(七支刀)의 명문(銘文)이나 인덕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거울 등으로 미루어 일본 고훈시대 응신왕과 인덕왕이 백제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 계체왕(AD507-531)이 백제 무령왕과 형제간이었음을 밝히는 인물화상경(人物畫像鏡-일본국보2호)유물이 발견되었다. 한편 홍윤기 교수는 『신찬성씨록』을 들어 일본 아스카시대 민달왕(AD572-585)이 백제의 왕족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고대의 그림자료에 나타난 복식은 백제복식문화를 유추해 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직공도의 문구를 해석하여 고대백제의 위치를 참고할 때 백제의 복식문화가 중국고대 제나라의 모태가 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으며 이로써 백제복식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백제복식문화를 유추하는데 있어 그 당시 백제인을 지배한 정신세계는 백제복식문화를 살펴보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흔히 백제의 정신세계를 중국의 도교와 연관지어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이었으나 개국 당시 백제의 지배계층이 고구려에서 남하한 세력들임을 감안할 때 고구려인들의 내세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구려를 비롯한 고대인들은 현재의 삶보다 사후세계에 의미를 두어 장생불사의 신선모습을 이상적 인물로 여겼다. 이렇듯 신선설은 본래 한민족에서 시작되었으며 중국에 전파되면서 본래의 정신과는 괴리된 미신과 잡술에 가까운 형태로 전락해 버렸다. 따라서 신선설과 연결되는 도교의 기원을 한국 신선사상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3) 백제왕과 왕비의 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제시대 왕이 상복을 입고 집무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나 대례복과 구분하여 문헌기록상의 왕복을 상복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하였다. 상복은 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烏韋履 坐南堂聽事の 문헌기록을 통해 선행된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왕의 대례복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세키네 교수의 그림자료를 토대로 백제시대에도 면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조선시대 면복 및 중국 한나라 면복과 비교하면 그 형태와 문양이 유사하여 왕의 대례복 또한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왕비 상복은 주변국의 복식, 고훈시대 스이코여왕의 초상과 안악3호분 묘주부인의 옷을 참고하여 유추하였으며 내유, 유, 상장유(포), 때론 반수의를 입은 형태로 볼 수 있다. 백제여자들이 입었던 긴 저고리인 장유(長)와 표의인 포(袍)의 관계와 구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스이코여왕의 초상화 속에서 장유(長)의 모습으로 미루어 왕비도 이와 유사한 포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이 백제시대 의사포가 아닌가 추측되어 진다. 왕비의 대례복은 전술한 왕복과 동일하다. 한편 왕과 왕비복에 나타난 색의 구성을 보면 우리의 화염만다라의 색 구성인 자, 황, 백, 청, 흑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4) 자료의 부족으로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백제복식의 형태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자료의 활용 타당한 논거를 최대한 보완하여 추론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그 시대 존재 가능한 복식형태를 유추해 본 것으로 단정적으로 결론지은 것은 아니다

다만 고대 역사를 현대적 영토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고고학적 논리에 입각하여 접근해 볼 때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도하였다.

참고문헌

- 고운기. (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서울: 현암사.
- 국립제주박물관. (2003). *한국인의 사상과 예술*. 서울: 서경출판사.
- 권오영. (2005). *고대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서울: 돌베개.
- 김동욱. (2003). *백제의 복식*. 서울: 민속원.
- 김영숙. (1999).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 김용만. (1998). *고구려의 발견*. 서울: 바다출판사.
- 박선희. (2002). *한국고대복식*. 서울: 지식산업사.
- 서미영. (2003). *백제의 복식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성훈. (2008). *천오백년전 일본인의 모습은 어떤가?* 서울: 플러스코리아.
- 양경애. (1997). 삼국시대 지배계층 복식연구. *복식*, 39, 181-196.
- 이도학. (1990). 百濟七支刀銘文再解釋. *한국학보*, 16(3), 65-82.
- 이정옥, 남후선, 권미정, 진현선. (2000). *중국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 정수일. (2008). *고대문명교류사*. 과주: 사계절출판사.
- 중국오천년문화집간. (1995). *중국복식5천년 上*. 손경자 역 (1995). 서울: 경춘사.
- 차주환. (1990). *朝鮮의道教*. 京都: 人文書院.
- 채금석. (2005). *이야기가 있는 고구려 복식문화(전시도록)*. 서울: 포도마을.
- 최몽룡. (2000). *훈과 인류*. 서울: 주류성.
- 최재석. (1989). 신찬성씨록 비판. *대구사학*, 38(1), 145-179.
- 코이케 미츠에, 노구치 히로미, 요시무라 케에코. (2005).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허은주 역 (2005). 서울: 어문학사.
- 한기두. (1993).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부.
- 홍사준. (1977). 新撰姓氏錄의 百濟人姓氏考. *마한·백제문화*, 2, 199-218.
- 홍윤기. (2006). *홍윤기의 역사기행-일본 속의 한류를 찾아서*. 서울: 세계일보.
- 홍윤기. (2008). *일본 속의 백제 구다라*. 서울: 한누리미디어.
- 화매. (1992). *중국복식사*. 박성실 역 (1992). 서울: 경춘사.
- 關根正直. (1925). *服制の研究*. 東京: 古今書院.
- 舍人親王. (AD720). *완역 日本書紀*. 전용신 역 (2008). 서울: 일지사.
- 蘇鎮徹. (1994). 일본국보 「隅田入幡神社所藏人物畫傷鏡」의 銘文을 보고. *원광대학교 논문집*, 28(1), 393-417.
- 沈從文. (民國70年). *中國歷代服飾*. 上海: 上海書店.
- 錢竹, 錢來忠. (1999). *中國民族服飾文藝辭典*. 北京: 大眾文藝出版社.
- 洪思俊. (1977). 신찬성씨록의 백제인성씨고. *백제연구*, 2, 199-218.